

중국 광역경제권 추진동향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중국은 사회주의 신중국의 성립 이후, 특히 1956년 모택동(毛澤東)의 '10대관계론(十大關係論)' 발표 이후 동부 연해지역(東部沿海地域)과 중·서부내륙지역(中西部內陸地域) 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동부 연해지역을 세계적인 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중국은 1999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4중전회(四中全會)를 통해 '서부대개발전략(西部大開發戰略)'을 제시하면서 2000년대의 지역발전정책은 동·서부의 협력적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대체로 중국의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에 의존하여 추진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2007년에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지역개발의 통일적인 공간적 계획을 중시하는 지역개발총괄전략(統籌區域發展)을 규정함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무원이 작성한 '공간특성에 따른 전국 편제 계획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지역개발총괄전략(統籌區域發展)은 중국의 전체 국토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최적화된 개발지역으로 개발밀도가 높고, 자원환경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지역, 둘째는 중점 개발지역으로 자원환경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경제와 인구의 밀집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 셋째는 개발억제지역으로 자원환경능력이 약하고, 경제 밀집도나 인구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며 생태보호가 필



이상빈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초빙부교수
chinabj@hanmail.net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swkyong@kiet.re.kr

요한 지역이다. 넷째는 개발금지지역으로 각종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다(劉健, 李國平 2006).

중국은 협력적 균형발전단계에서 지역개발총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동부와 중·서부지역 간의 협력발전을 목표로 하여 광역경제권의 발전 심화와 중앙정부 주도의 거시적 조절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광역경제권의 추진동향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최근까지 각 지역의 경제적 발전 상황을 반영하는 8대 경제권역 구분법을 1997년에 제시하였다. 이 구분법에 따르면 동북지역(東北地域)은 요녕(遼寧), 길림(吉林), 흑룡강(黑龍江)을, 북부연해지역(北部沿海地域)은 북경(北京), 천진(天津), 하북(河北), 산둥(山東)을, 동부연해지역(東部沿海地域)은 상해(上海), 강소(江蘇), 절강(浙江)을 포함하고 있다. 남부연해지역(南部沿海地域)은 복건(福建), 광둥(廣東), 해남(海南)을, 황하중류지역(黃河中流地域)은 산서(山西), 섬서(陝西), 하남(河南), 내몽고(內蒙古)를, 장강중류지역(長江中流地域)은 호북(湖北), 호남(湖南), 안휘(安徽), 강서(江西)를 포함하고 있다. 서남지역(西南地域)은 운남(雲南), 귀주(貴州), 사천(四川), 중경(重慶), 광서(廣西)를, 서북지역(西北地域)은 감숙(甘肅), 청해(青海), 영하(寧夏) 서장(西藏), 신강(新疆)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8대 권역은 모두 지리적으로 인접한 성·시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자연조건과 천연자원 등 부존자원이 유사하다.

이러한 8대 권역 중에서 북부연해지역, 동부연해지역, 남부연해지역은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대 광역경제권을 포함하고 있다. 즉 북부연해지역은 환발해지역경제권(環渤海地域: 북경, 천진, 하북성 등), 동부연해지역과 남부

연해지역은 각각 장강삼각주경제권(長江三角洲: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과 주강삼각주경제권(珠江三角洲: 광둥성의 심천, 주해, 둥관 등)을 중심으로 광역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광역경제권(대도시권, 도시군 집합, 대경제구, 대도시구 혹은 대도시구 집합)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비교적 명확한 자연적·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후방 연계에 있는 일련의 산업체들이 밀접한 교류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광역경제권에는 통상적으로 원재료 생산권역, 에너지 생산권역, 가공구와 농업기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광역경제권 형성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장화)와 도시화,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화와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11·5계획)에서 장강삼각주경제권, 주강삼각주경제권, 그리고 환발해경제권을 경제성장의 추진체로서 중국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중국은 2011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정치협상회의(政協)의 양회(兩會)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2차 5개년 계획강요(12·5계획, 2011~2015년)'를 발표하였다. 제12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촉진,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공공서비스체계의 구축 및 인적 자본의 확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



A자형 산업발전축 :
 동관 지식집약형 산업벨트
 서쪽연안 기술집약형 산업벨트
 연해지역 생태·환경보존형 산업벨트

■ 지식집약형 산업벨트
 ■ 기술집약형 산업벨트
 ■ 생태·환경보존형 산업벨트

주강삼각주경제권 산업발전축

소재와 신에너지 자동차로 되어 있다. 그런데 12·5계획이 담고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정책 부분을 보면, 앞서 제정된 장강삼각주경제권, 주강삼각주경제권 개발계획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발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장강삼각주경제권은 상해를 핵심으로 하여 상해와 남경(南京) 그리고 상해와 항주(杭州), 영파(寧波)를 연결하고, 강, 바다, 만을 따라 남경, 호주(湖州), 항주를 연결할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호수와 동룡해(東龍海)와 운하를 따라 온주(溫州), 여수(麗水), 금화(金華), 구주(衢州)를 중심으로 발전 벨트를 형성하는 '한 개의 핵심과 9개의 지역벨트'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장강삼각주경제권은 중국의 대외개방정도가 가장 높은 권역으로서 선진제조업(전자정보, 설비제조, 철강, 석유화학 등)과 신성장 산업(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민간항공·우주 등), 그리고 전통 산업(농업, 방직의류, 관광 등)을 발전시키고 수륙교통을 활용한 전국 최대의 대외무역수출 단지로서 국제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주강삼각주경제권은 홍콩, 마카오지역과 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업, 전시·박람회, 물류업,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아웃소싱서비스업,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과 관광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전체적인 서비스업 발전 수준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와 항구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본·기술집약적이고, 연관성 및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선박제조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신흥 산업화를 촉진할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전자정보, 바이오, 신소재, 환경보호, 신에너지, 해양 등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생산액 천억 위안(元)을 초과하는 신흥 산업클러스터를 3~5개 육성하여 매출액 규모가 천억 위안(元)에 이르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을 3~5개 정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산업 총부가가치에서 점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